

# 전승집단에 따른 기억의 투사양상

- 眞表傳承을 중심으로 -

김 승 호\*

## <차례>

1. 머리말
2. 진표전승의 범위와 전승자 집단
3. 佛家, 존승의 시선과 聖跡의 현시
4. 儒家, 外道에서 발견한 효행
5. 俗家, 민중 꿈의 실현과 좌절
6. 맺는말

## <국문초록>

眞表이야기는 삼국시기부터 최근까지 전승력을 유지하고 있는 드문 사례로 전승의 논의대상으로는 매우 적합하다. 본고는 전승의 요소 가운데 전승자를 중심으로 진표이야기의 전승 계층을 불가,유가,속가로 나누어 각 전승담의 내용,형식,주제,등에 나타나는 특성을 헤아려 보고자 했다.

佛家에서 전해지고 기록된 전승들은 한결같이 진표의 일생 전체를 서사시간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민간의 진표전승을 적극 받아들이되 俗的 요소가 강한 것은 배제하고 성스러운 내용 단위로 선별하여 일대기를 엮어가는 것이야말로 이들 전승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宋高僧傳』, 『鉢淵巖石記』, 『三國遺事』에 투영된 진표는 중생을 구제, 교화하는 것은 물론 미물들마저 불법의 세계로 인도하는 초월적 존재로서 부각된다. 이에 반해 儒家에서는 진표를 현세적 도덕물로 우선시되는 효행의 실천자로 규정하는데 인색함이 없다. 특히 조선시기 유자들은 진표전승을 통해 죽음을 마다않는 수행, 절에 매인 몸이면서도 부모에 전력하는 효자로서의 덕행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俗家의 전승에 나타나는 진표는 고승, 혹은 역사적 위인이 아닌 주어진 삶을 불평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의 소유자로 규정된다. 한때 그는 꿈을 성취하지만 신분이란 울타리에 다시 갇혀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속가의 진표전승은 역사적 인물로서 진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 자신들을 투사시킬 대상으로 진표를 선택했다고 보아야 한다.

진표전승을 통해 우리는 전승자란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이야기를 변이시키

\* 동국대 국어교육과

고 나아가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로 재편해가는 데 역동성을 발휘하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된다.

주제어 : 眞表전승, 전승집단, 佛家, 儒家, 俗家, 孝, 聖, 俗

## 1. 머리말

본고는 眞表 이야기에 나타나는 전승적 특징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알다시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인물전설도 신라인 위주로 진행된 것이 전승사적 실상이다. 그런 점에서 백제권의 인물이면서도 후대까지 전승력을 유지한 진표는 특이한 사례이다. 진표이야기는 백제권을 넘어 신라권, 그리고 唐·宋으로까지 퍼졌으며 전승집단의 다양성만큼이나 술한 전승담이 출현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진표전승만큼 연구적 대상으로 주목되는 과제도 달리 없다고 본다.

그동안 몇 논자에 의해 진표전승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나름의 성과가 도출되었다. 일반적인 인물전승들과는 달리 聖顯을 지닌 존재로 형상화해 나가는 불교 특유의 발화방식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sup>1)</sup> 하지만 지나치게 불교적 인간으로서 진표를 규정하고 접근한 나머지 이 전승담이 지니고 있는 다층적이고 다의적인 특성이 제대로 부각되

1) 전승시기, 전승층의 편폭이 두터운 데 비해 진표전승 연구는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불교 전승문학적 측면에서 주목할 논문으로는 고석훈, 『진표·진목문학의 특질과 전승양상』, 동국대 석사논문, 2001, 9-30면. 서철원, 「진표 전기의 설화적 화소와 聖者의 형상」, 『시민인문학』 16호, 2009, 165-186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 진표의 전기, 불교사적 위상, 미륵신앙과 관련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풍성하다 하겠다. 대표적인 업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태, 「점찰법회와 진표의 교법사상」, 『신라불교연구』, 민족문화사, 1990, 381-404면. 김남윤, 「진표의 전기 자료성격 검토」, 『국사관논총』 78, 국사편찬위원회, 1997. 박광, 『진표의 점찰법회와 미륵신앙』, 『한국사상사학』 26, 한국사상사학회, 2006, 1-32면. 조인성, 「미륵신앙과 신라사회-진표의 미륵신앙과 신라말 농민봉기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82, 진단학회, 1996.

지 못한 한계를 남기고 있었다.

필자는 진표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을 수용층의 다양함에서 찾으려 한다. 그리하여 전승집단을 佛家, 儒家, 俗家로 3분하고 그를 기준으로 각 집단 내 전승이 지닌 내용, 형식, 사상, 미학적 특성 등을 변별화해나가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 작업은 주로 통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전승의 연구적 시각을 전승자 중심으로 돌려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진표전승의 폭과 지점을 확인하는데 그 의미를 둘 것이다.

## 2. 진표전승의 범위와 전승자 집단

삼국시기에 활약한 인물의 전승은 전달 매개에 따라 구비전승, 문헌전승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진표는 삼국시기에 활동한 인물로는 드물게 일화, 전설을 풍성하게 남기고 있는 편이다. 『宋高僧傳』, 『鉢淵藪石記』, 『三國遺事』 등은 불가의 자료들로 불교 지식인들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진표의 초기전승을 담고 있다. 문헌전승이라 해도 이들 또한 당시 구전되던 이야기에서 유입된 것임은 물론이다.

진표의 초기전승부터 후기전승까지 살피고 계통성을 마련하는 것이 논의의 중심은 아닐지라도 일단 진표전승을 범주해 보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헌, 구전자료를 두루 포함하여 진표전승의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승집단	채록자	채록시기	서사형식	출처
佛家	贊寧	송(10세기)	승전	『宋高僧傳』, 眞表傳
	瑩峯	고려(12세기)	승비	『三國遺事』, 楓嶽山, 鉢淵藪石記
	一然	고려(13세기)	승전	『三國遺事』, 眞表傳簡
	自優	조선(19세기)	민담	『韓國佛教全書』 9卷, 雪潭集

전승집단	채록자	채록시기	서사형식	출처
儒家	李奎報	고려(13세기)	유산기	『東國李相國集』 23卷, 南行月日記
	南孝溫	조선(15세기)	유산기	『秋江集』 5卷, 遊金剛山記
	申楫	조선(17세기)	유산기	『河陰先生文集』 7卷, 關東錄 下
	尹宣舉	조선(17세기)	유산기	『魯西先生遺稿續』 3卷, 巴東紀行
	李澈	조선(18세기)	유산기	『弘道先生遺稿』 卷5, 東遊錄
	魚有鳳	조선(18세기)	유산기	『杞園集』 卷20, 再遊金剛內外山記
	吳瑗	조선(18세기)	유산기	『月谷集』 卷10, 遊楓嶽日記
	宋煥箕	조선(18세기)	유산기	『性潭先生集』 卷12, 東遊日記
	趙秉鉉	조선(19세기)	유산기	『成齋集』, 金剛觀敍
	李裕元	조선(19세기)	유산기	『林下筆記』 37卷, 蓬萊秘書
俗家	金堤郡史편찬위원회	최근(1978년)	전설	『金堤郡史』, 1978, 865면.
	金堤市史편찬위원회	최근(1995년)	전설	『金堤市史』, 1995, 1598-1603면.

전승 계층을 갈래의 지표로 삼아 자료들을 범주화해 본 것이다. 대다수의 자료들이 문헌에 속하는 것이어서 자칫 진표전승이 식자층위주로 전개되었다는 선입견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문헌전승물이라 하더라도 그에 앞서 등장했던 구비전승물을 채록하여 올린 것이므로 엄격하게 문헌, 구비전승간의 경계적 특성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표이야기의 전승자 집단은 신분, 삶의 지향성, 현실인식 등에 따라 佛家, 儒家, 俗家 등 세 집단으로 갈라볼 수 있을 것이다. 진표전승의 연원은 진표가 활동하던 당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고 전승의 진원지로는 김제지역, 특히 그의 고향인 만경현 대정촌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 처음 이야기를 견인한 사람들 역시 그 지역의 민중들로 설정해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듯 한데 백제 지역에서 전승이 발생하여 그후 신라지역으로 범위가 확장되어 간 것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진표는 광포설화의 주인공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삼국시대를 지나서도 진표는 여전히 전승의 대상으로 선호되었으며 다양한 신분 계층들이 그 이야기의 전승 담당층으로 나섰다. 즉 승려, 민중층은 물론 반불적 의식이 몸에 배어 있는 유자층까지도 진표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아득한 시공간을 넘어 진표전승이 전승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아무래도 그 삶 자체가 僧俗 각각의 관심과 호기심을 견인하는 요소를 풍성하게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전제해 볼 수 있다.

전승을 매개하는 집단의 기억 속에 특정 부분은 의도적으로 선택되고 의미있는 것으로 규정되고 해석된 이야기로 남는다.<sup>2)</sup> 아울러 이야기는 삶의 문화 습관 본보기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뿐 아니라 설사 문화나 교육이 같더라도 그 일을 하게 된 동기,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sup>3)</sup> 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진표전승에서 전승자 중심의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진표전승의 성격은 전승자, 전승시기, 전승지역 등 어떤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나 본고에서는 논점을 잃지 않으면서 그것이 지닌 서사적 편쪽을 살피기 위해 전승자의 신분계층을 근거로 진표전승의 기억적 범위, 내용전개, 주제구현방식 등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3. 佛家, 존승의 시선과 聖跡의 현시

진표는 경덕왕때 활약한 고승으로 完山州 萬頃縣에서 태어나 占察經과 189개 간자를 이용한 占察敎法을 마련하는 등 미륵신앙을 진작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인 인물이다.<sup>4)</sup> 그가 마련한 점찰교법은 이후 永深 등 많은 제자에게

2) DM 라스무센 지음·장석만 옮김, 『상징과 해석』, 서광사, 1991, 32면.

3) 주네트의 지음·석경정의 옮김, 『현대서술이론의 흐름』, 솔, 1997, 124면.

4) 고익진, 『한국고대불교사상사』, 동국대출판부, 1989, 77면.

계승되었으니 당대 교단에서 차지했을 위상을 충분히 헤아릴만 하다. 따라서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은 물론 신자, 호불자들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진표의 신성함과 위대함을 드러내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한 전승자라 할 것이다.

불가 내 진표의 전승을 가장 먼저 확인시켜주는 것은 998년 贊寧이 찬술한 『宋高僧傳』 소재 唐百濟國金山寺眞表傳이다. 이는 처음부터 일대기를 지향하고 쓴 僧傳이다. 따라서 순수한 전승물로 보기는 어색할 수도 있겠으나 그 내용조건으로 보면 전승적 검토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출가동기를 전하는 서두부터가 세속간의 전승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진표는 대대로 사냥을 業으로 고민없이 살아가던 터에 뜻밖의 경험으로 행로가 달라진다. 어느 날 사냥 나갔던 길에 개구리를 잡아 버들 가지에 꿰어 물속에 넣어둔 채 귀가한 일이 있었다. 그는 이를 완전히 잊고 말았다. 그러다 다음해 근처를 지나다 개구리 우는 소리에 물가를 찾게 되었고 거기서 30마리의 개구리들이 몸이 꿰어진 채 울고 있음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서둘러 개구리들을 풀어주고 고통 속에 미물들을 방치했던 자신을 책하면서 출가를 결심한다.<sup>5)</sup>

이는 불연적 根機를 앞세워 출가를 숙명으로 돌리는 대부분의 불승담과는 판이한 내용이다. 聖者的 傳記化를 포기한 내용전개로 비추어질 정도이다. 진표가 사냥을 업으로 삼았다는 점은 불교적 시각으로 볼 때 누구보다 악업을 많이 쌓았다는 뜻이 될 것이다. 보통 승전들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에서 불연적 일화를 동원하고 그를 통해 불승으로서의 根機를 드러내는 것<sup>6)</sup>과는 거리가 크다. 하지만 승전적 성격에서 벗어나는 내용일지는 모르나 이를 통해 재속시를 배경으로 진표전승의 윤곽을 살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송고승전』이 불가적 시각의 속가의 전승이 유입되었다고는 하나 여타

5) 贊寧, 『宋高僧傳』, 唐百濟國金山寺眞表傳.

“釋眞表者百濟人也 家在金山世爲弋獵 表多蹻捷 弓矢最便 當開元中 逐獸之餘 憩於田畝間 折柳條貫蝦蟆成串 置於水中 擬爲食調 遂入山網捕 因逐鹿 由山北路歸家 全忘取貫蟆歟 至明年春 獵次聞蟆鳴 就水 見去載所貫三十許蝦蟆猶活 表於時嘆惋 自責曰 苦哉 何爲口腹 令彼經年受苦 乃絕柳條 徐輕放縱 因發意出家”

6) 김승호, 「불교적 영웅고」, 『한국문학연구』 12집, 1989, 329-354면.

승전 찬술방식과 같이 주인공의 성스런 자취를 우선해서 수습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생을 구성해나가는 관행을 벗어나지 않는다. 출가 이후의 행적부터는 불퇴전의 결심으로 성자적 단계에 오르는 과정을 가능한 밀도 있게 나열해 보인다. 금산사에서 계를 받은 후 진표는 미륵보살에게 계법을 전수받고자 발분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전신을 내던지는 것으로 발원의 정도를 표시하게 된다. 그 행동은 보살마저 놀라게 만들었으니 미륵보살로부터 계법을 구하는 그 열의를 칭찬받은 것은 물론 三法衣와 발우, 그리고 침대 등의 물건까지 하사받기에 이른다. 특히 미륵보살은 108개의 침대를 주면서 사람들이 계법을 구하려하면 반드시 먼저 죄를 참회케하고 짐을 치라 가르쳐준다.<sup>7)</sup>

불사의방에서 지장, 미륵보살을 친견한 사건은 속적 세계를 초월하여 성적 세계로의 편입에 해당하는 통과제의로 규정할 수 있다. 그 후로 진표는 장소를 옮기며 대중, 미물들을 구원하고 신불의 세계로 인도하는 주체로서의 다양한 자취를 드러낸다.

『宋高僧傳』에서 그리고 있는 진표의 행적은 “수렵 - 지장 미륵의 친견과

7) 贊寧, 상계서, 唐百濟國金山寺眞表傳.

“自思惟曰 我若堂下辭親室中割愛 難離欲海莫揭愚籠 由是逃入深山以刀截發 苦到懺悔 舉身撲地志求戒法 誓願要期彌勒菩薩授我戒法也 夜倍日功 繞旋叩磕 心心無間念念翹勤 經於宵 詰旦見地藏菩薩手搖金錫梁爲表策發教發戒緣作受前方便 感斯瑞應嘆喜遍身勇猛過前 二日滿有大鬼現可怖相 而推表墜於岩下 身無所傷 匍匐就登石壇上 加復魔相未休 百端千緒 至第三日質明 有吉祥鳥鳴曰 菩薩來也 乃見白云若浸粉然 更無高下山川平滿成銀色世界 兜率天主逶迤自在 儀衛陸離 圍繞石壇 香風華雨 且非凡世之景物焉 爾時慈氏徐步而行 至於壇所 垂手摩表頂曰 善哉大丈夫 求戒如是 至於再至於三 蘇迷盧可手攘而卻 示心終不退 乃爲授法 表身心和悅 猶如三禪 意識與樂 根相應也 四萬二千福河常流 一切功德 尋發天眼焉 慈氏躬授三法衣 瓦鉢復賜名曰眞表 又於膝下出二物 非牙非玉 乃簽檢之制也 一題曰九者 一題曰八者 各二字 付度表云 若人求戒當先悔罪 罪福則持犯性也 更加一百八簽 簽上署百八煩惱名目 如來戒人 或九十日 或四十日 或三日 行懺苦到精進 期滿限終 將九八二簽參合百八者 佛前望空 而擲其簽 墮地外驗罪滅不滅之相 若百八簽飛逗四畔 唯八九二簽卓然壇心而立者 即得上上品戒焉 若衆簽雖遠 或一二來觸九八簽 拈觀是何煩惱名 抑令前人重覆懺悔已 正將重悔煩惱簽和九八者 擲其煩惱簽 去者名中品戒焉 若衆簽埋覆九八者 則罪不滅 不得戒也 設加懺悔過九十日 得下品戒焉 慈氏重告誨云 八者新熏也 九者本有焉”

신표 수수 - 중생포교 및 구원-사찰건립” 등 중요 사건이 축을 이룬다. 이중에서도 단연 주목되는 것이 在世談이다. 승전의 서사시간은 대체로 出世間에 몰리게 된다. 하지만 『宋高僧傳』에서는 그런 관행을 무시하고 사냥꾼으로 살생을 밥 먹듯하던 과거사를 숨김없이 발설한다. 국내 문헌 전승에서는 소개되지 않는 이 이야기는 국내에서 폭넓게 전파되다 중국까지 흘러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對唐유학 체험조차 없었던 진표가 중국의 문헌전승에 오른 것을 보면 그의 명성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거니와 한중간 인물전승이 얼마나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었는지 가늠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국외전승이다 보니 진표의 출가시기, 고향, 師僧 등 기본적 정보들마저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나기도 한다.

『鉢淵藏石記』는 고려시대 진표의 전승을 엿볼 수 있는 앞선 자료이다. 瑩峇이 진표의 유골이 흩어진 채로 방치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장골담를 세우면서 쓴 글이다. 비문이 그렇듯 여기에는 진표의 일생을 좇아 기록되고 있다. 그 내용은 “가계-출가-구족계-불보살로부터의 계법수수 - 불사의방에서의 兩聖친견, 천안통획득, 간자구득 - 중생교화 - 금산사 창건” 등이 계기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구성으로 보면 거의 『송고승전』을 따르고 있으나 재세담은 여기서 제외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가문, 출생, 성장, 출가 동기 등을 전하는 진표의 在世談이 부주의로 누락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생을 성스럽게 구조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는 것이 불가의 전승적 특성에 맞다고 본다.<sup>8)</sup>

瑩峇의 『鉢淵藏石記』는 비명형식의 글이므로 탄생에서부터 시멸까지의 일생을 서사시간으로 수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연대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서사 지표는 시간

8) 『鉢淵藏石記』, 『三國遺事』 등은 진표의 일생을 지향하고 있는 전기이면서도 출가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같은 전기라 할지라도 『宋高僧傳』, 『唐百濟眞表傳』에서는 진표의 출가 전 행적은 물론 출가동기를 흥미롭게 전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반면에 영잠이나 일연은 在俗時 이야기를 누락시킨 채 진표의 고일하고 성스런 자취만을 선별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아니라 공간으로 보이는데 진표의 일생은 몇 군데 장소를 축으로 짜여진다. 가령 불사의방, 발연수, 금산수 등은 이른바 진표가 신성한 자질을 예비하거나 혹은 성현을 드러내는 장소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不思議房은 진표에게 통과의례적 의미가 강한 곳이다. 『송고승전』대로라면 이제까지 악업만을 지은 그가 곧장 이곳을 찾게 되는데 亡身조차 개의치 않는 의지를 보인 끝에 미륵보살로부터 대장부라는 찬탄과 함께 건성의 인가를 얻는다. 불사의방에서 지장·미륵보살을 친견하고 그들로부터 신물을 건네받음으로써 진표는 俗의인 요소를 탈색한다. 그곳에 머물면서 진표는 불보살에 버금가는 위력을 갖추고 성현의 주체로 탈바꿈한다. 鉢淵藪와 金山藪는 성자적 위치에 오른 진표가 본격적으로 대중은 물론 미물들까지 교화하고 구원하는 대표적인 성소로 기능한다.

『鉢淵藪石記』는 『宋高僧傳』, 『三國遺事』와 다르게 미륵보살이 건네 준 점찰경이나 간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설명이 소략한 편이다. 하지만 국의 자료인 『송고승전』보다 더 많은 전기적 사실을 제공해야 한다는 열의만은 분명히 짚어진다.<sup>9)</sup> 진표 무덤 위의 소나무가 살고 죽기를 반복한 일, 사람들의 무관심속에 방치되던 진표의 유골을 수습하여 장골탑을 건립한 일<sup>10)</sup> 등 서사주체로서 영감의 자기 체험의 증언이 보태져 전승내용이 풍성해진 것은 주목할 만하다. 『三國遺事』 眞表傳簡의 서사지향점은 역시 앞서 등장한 『宋高僧傳』이나 『鉢淵藪石記』와 마찬가지로 진표의 송고한 자취를 전하고 있는 傳記類이다. 다른 문헌에 비해 출현이 늦었던 탓에 가장 상세한 내용을 담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앞선 문헌자료를 무비판적으로 반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

9) 『宋高僧傳』에서 불투명하게 처리된 사실들이 『鉢淵藪石記』에 이르면 한층 보완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가령 영감은 진표의 고향을全州 碧骨郡 都那山村 大井里, 출가시기를 12세, 具足 師僧을 順濟法師로 적시해 놓고 있는 것이다.

10) 瑩峯, 『關東楓岳鉢淵藪石記』.

“師遷化時 登於寺東大巖上示滅 弟子等不動眞 而供養 至于骸骨散落 於是以土覆藏 乃爲幽宮 有青松卽出 歲月久遠而枯 復生一樹 後更生一樹 其根一也 至今雙樹存焉 凡有致敬者 松下覓骨 或得或不得 予恐聖骨滅 丁巳九月 特詣松下 拾骨盛筒 有三合許 於大上雙樹下 立言安骨焉”

니다. 일연 특유의 사실적 검증, 전승의 선별 안목이 발견되는 것이다. 한 예로 진표의 출생지를 두고 일연은 『발연수석기』를 따르지 않고 完山州 萬頃縣 豆乃山縣 혹은 那山縣이라 했으며 부모의 이름을 각각 眞乃末, 吉寶娘, 성을 井이라 변증해내고 있다. 그리고 구족계를 받은 은사에 대해 『발연수석기』에서 順濟스님이라 했던 것을 여기서는 崇濟스님으로 정정하고 있다.<sup>11)</sup>

진표가 兩聖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대목에 비증을 두고 있는 것은 선행서사와 마찬가지로이다. 俗에서 聖으로의 이행부위가 바로 그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 틀림없겠는데 점찰, 간자와 관련해 상세한 설명을 부연하는가 하면 서사의 말미에서도 점찰경과 관련한 비평을 덧붙일 정도로 미륵신앙을 진작시킨 진표의 위업에 경외감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眞表傳簡은 진표의 성자적 자취에 주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차지했던 사회적 위상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즉 그는 대중구원자를 넘어 경덕왕에게 보살계를 주는 등 상층과의 결연 또한 두터웠음을 밝힌다. 여기에 永深과의 일화를 포함, 8명의 제자와의 인연을 열거함으로써 그 법맥과 승단 내 위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sup>12)</sup>

고려시기 불가에서 출현한 위 3가지 문헌자료는 일상의 논리나 합리성을 넘어서는 세계를 보여주며 교리상의 예외적 합법성을 추구한다고 하겠다.<sup>13)</sup> 출가, 청익, 교화 및 제도, 열반 등은 진표의 일대기를 이루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성자적 궤적을 엮어내는 구성단위가 되고 있다. 불보살에 의해 신성한 존재임을 인가받고 이후 대중과 미물을 교화, 구원하는 진표의 신성한 자취

11) 『三國遺事』, 眞表傳簡.

“釋眞表 完山州(今全州牧)萬頃縣人(或作豆乃山縣 或作那山縣 今萬頃 古名豆乃山縣也 貫寧傳釋□之鄉里 云金山縣人 以寺名及縣名混之也) 父曰眞乃末 母吉寶娘 姓井氏 年至十二歲 投金山寺崇濟法師講下 落彩請業”

12) 상계서, 眞表傳簡.

“景德王聞之 迎入宮 受菩薩戒 租七萬七千石 椒庭列岳皆受戒品 施絹五百端 黃金五十兩 皆容受之 分施諸山 廣興佛事 其骨石今在鉢淵寺 卽爲海族演戒之地 得法之袖領 曰永深 寶宗 信芳 體珍 珍海 眞善 釋忠等 皆爲山門祖 深則眞表簡子 住俗離山 爲克家子 作壇之法 與占察六輪稍異修 如山中所傳本規”

13) 카트린뢰게 알더 지음·이문기 옮김, 『민담, 그 이론과 해석』, 유로, 66면.

를 확인해주는 것이야말로 불가 내 전승자들이 무엇보다 유념할 핵심적 사항으로 여겨진다.

佛家내 진표전승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주목되는 것이 自優(1769-1830)가 남긴 『雪潭集』 소재 夢行錄이다. 自優가 龍集 癸未年(1823) 백제, 호남권의 산과 사찰을 두루 편람한 끝에 남긴 기록이다. 遊山記임에도 이 자료가 주목되는 이유는 노정의 기록에 그치지 않고 寺衆들 사이에 전해 지던 19세기 진표 전승을 삽입해 놓은 때문이다. 자우가 변산 사자암에 들렀다가 주지 明衍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진표는 扶風 大井村 출신으로 사냥을 하면서 살던 가난한 총각이었다. 어느 날 큰 자라 한 마리를 잡아 부엌에 두고부터 아침마다 진수성찬이 차려진다. 이윽고 자라가 색시로 변해 그리 해놓은 것을 알아챈 진표가 여인에게 청혼 끝에 부부가 된다. 행복하게 살던 중 자라각시가 출산을 빌미로 진표에게 자리를 비켜줄 것을 청하게 된다. 하지만 진표가 출산현장을 몰래 지켜본 바람에 그때 낳은 7龍子是 모두 죽고 자라각시는 홀연히 사라진다. 절망감에 빠졌던 진표는 다시 사냥 일을 하며 살아간다. 그러다 피 흘리며 달아난 사슴이 다름 아닌 범당 안의 불상임을 목격하고는 충격 끝에 출가를 결심한다. 그리고 금산사에 가서 구족계를 받는다.<sup>14)</sup>

夢行錄의 자라각시 이야기는 우렁각시 민담과 서두부가 일치한다.<sup>15)</sup> 진표

14) 『雪潭集』 卷 下 (韓國佛敎全書 9卷, 동국대 출판부, 746면).

“眞表律師 扶風大井村人也 在家無產 以釣爲事 一日終不釣一魚 暮得巨鰲 還無人買 懸廚飢臥 朝看滿盤珍饈在側 因進食之 明朝亦然 心怪之 潛窺得一美姬 從鰲出 雖乏蹇脩 與結縭星期因成好 烟交霧壓 雨濃風撓 居化大廈 鳥革翬飛 宛然官廡 僮僕成隊 駿驄列廐 榮富赫然 詩書不閑 以射爲業 一夕姬言 我已當產 小避出云 怪其伉儷 問間忌權依 從夜潛還縱觀 果誕七子 鱗角崢嶸 洗浴於雲霧中 姬知窺 呼入七龍子 見已立死 姬不憤其甚 剝 夜撒飛去 唯餘空墟 眞似姪女 已歸宵漢去 默郎猶在火邊 栖其地 俗猶傳七龍墓 從此落托 唯持弓矢 射禽獸爲業 一日射鴈 踵鮮血入佛宇 像乃帶矢也 大驚悔 却弓矢 山有却弓矢爲名地 因剃染 結社修禪 終得大惺悟 摩天臺現大化身 足受供於金山寺”

15) 우렁각시의 기본형은 기점-상봉-밥상-처녀의 변신-금기제시-결혼-결말 등 7개의 단락소로 구성된다. (배도식, 「우렁각시 설화의 구조와 의미」, 『동남어문논집』 23집, 2007, 40면.) 진표전승에서는 결혼이후에 금기제시, 결혼파탄이 이어져

에게 기적같이 다가온 행복이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처리된 것은 금기위반 모티브를 토대로 하는 우렁각시류의 이야기 중에서도 비극형을 차용한 때문 일 것이다. 우렁각시 이야기의 총각이나 진표는 한결같이 금기를 위반하여 비극에 빠진다. 우렁각시에서 금기모티브를 삽입한 까닭은 도덕적 윤리적 필요, 혹은 사회적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하여 금기 위반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한다.<sup>16)</sup> 하지만 진표전승의 경우는 그 뒤의 부언담으로 보아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금기를 보기보다 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민중의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진표는 자라각시와의 결혼이 행복을 영원히 담보해주는 것으로 알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금기의 위반과 함께 사라지는 행복이었다. 아내의 정체를 확인하고픈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출산현장을 엿본 탓에 원래 하층민의 처지로 되돌아가고 만 것이다. 몽행록의 자라각시이야기는 하층민에게 현실이란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그것을 벗어나기 역시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夢行錄은 속가에서 전해지던 우렁각시 이야기가 자라각시 이야기로 어떻게 변이되어갔는지를 가늠해 볼 자료인데 우렁이대신 자라로 인물만 바꾼 것으로 자라각시 이야기를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자라각시 이야기를 통해 불가에서는 인간사의 고통과 허무를 드러내 보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자라각시 이야기의 종결부위에 눈을 돌리면 이해가 된다. 대단원에 이르면 자라각시와 헤어진 후에도 사냥을 업으로 삼던 진표가 부처의 응신을 통해 그 동안 지은 악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 그리고 출가를 단행한다. 포괄적 시각으로 보면 자라각시 이야기나 부처의 사슴 응신담은 진표의 출가동기를 전하기 위해 불교설화 중의 한 예화를 끌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

기본형과 차이가 있지만 금기를 위반해 비극적 결말을 맞는다는 비극형 우렁각시 이야기와 전체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보인다.

16) 박완호, 「우렁각시를 통한 한중 양국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고찰」, 『중국인문과학』 40집, 2008, 521면.

17) 사냥꾼이 살생을 참회하고 불가에 귀의하는 내용 전개는 불교설화에서 어렵지

몽행록의 자라각시 이야기는 우렁각시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지만 민중의 세계관을 반영하기 보다는 미미한 한 인간이 고해의 세계를 뒤로 하고 구도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까닭을 해명해주기 위해 동원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속세에서의 비극적 상황, 사건을 체험한 진표가 궁극의 길을 모색하다가 출가를 모색하게 된다는 이 이야기는 속가의 민담에서 불가의 민담으로 그 속성이 바뀐 경우이다.

#### 4. 儒家, 外道에서 발견한 효행

유가에서는 되도록 승려를 전승의 대상으로 삼으려 들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이미 탈속적 경향을 보이다가 혈연을 등지고 출가를 단행하는 행위만큼 인류에 반하는 일은 없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승려는 유가에서조차 전승의 대상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중의 한 예가 진표이다.

진표전승에 맨 먼저 관심을 드러낸 유자는 고려시대의 유자 李奎報이다. 瑩峇이나 一然보다 앞서 활동했던 그는 지방관으로 전주에 부임했다가 임지에서 멀지 않은 변산의 不思議巖을 답사했다. 그리고 기행문을 지으면서 진표의 전승을 소개했다. 이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미륵보살을 친견하고 계를 받고자 불가의방을 찾았으나 뜻을 이룰 수 없게 된 진표는 절망감을 못이기지 못한 채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진다. 두 청의동자가 몸을 받아주어 간신히

---

않게 만날 수 있다.

“古記云 昔有獵士順頤等二人 射一金猪則所射之穴 鮮血點地 而從歡喜峰而去 獵士追至 望其所止之處則不見金猪 但見石像 在泉源中 而頭而已出 其身尚隱 左肩中有所射之箭 故 二人大驚 卽拔其箭而欲出其體 則體不動如泰山 二人愕然 俱立誓云 大聖旣而哀憐我等 爲欲度脫 現此神變 若明日出坐泉邊之石上 我等當出家修道 已而退 翌日來見之 像出坐于石上 二人卽出家于唐開元八年庚申 率其徒三百餘人 期是蘭若 二人於林下 累石爲臺 當坐臺上精進故 因名石臺”(閔漬, 寶蓋山石臺記)

살아난 그는 동자들의 조언대로 좀 더 정성을 바친 끝에 지장, 미륵보살을 친견하고 經과 簡子를 건네받는다.<sup>18)</sup>

전후 맥락으로 보아 불보살과의 친견 및 信物의 인수는 곧 俗에서 聖으로의 전변을 의미할 터인데 이규보가 감동한 것은 불보살 친견에 자신의 몸마저 과감하게 포기하는 발원의지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진표의 亡身을 주저하지 않는 친불의지는 조선시기에 들어와서도 외면해버릴 수 없는 행적으로 지목된다. 申楫의 關東錄은 진표가 변산의 불사의암에서의 불보살 친견을 위해 발분한 자취와 더불어 발연암과 장안사를 창건한 장본인임을 전하고 있으며<sup>19)</sup> 尹宣擧는 발연의 치폭에서 걸가부좌한채 폭포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도 선정을 유지했다고 밝혀 定心工夫에 대한 그의 치열함에 감탄하고 있다.<sup>20)</sup>

그러나 진표를 바라보는 조선시대 유자들의 눈길이 초인적인 수행력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유자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진표의 효심이었다. 李澈 魚在鳳, 宋煥箕는 진표가 머물렀던 鉢淵寺, 長安寺, 圓通庵 등 금강산내 제 사찰을 거론하면서 어머니의 수발을 거들며 봉양으로 일관한 진표의 자취를 주목한다. 그리고 발연사를 중심으로 근처의 기암, 고개 들에 진표의 효행 흔적을 따라 孝養臺, 孝養峙 등의 이름이 붙게 되었음을 밝힌다.<sup>21)</sup> 적지 않은 유

18) 『東國李相國全集』卷第二十三, 南行月日記.

“遂入焉 敲石取火 焚香禮律師眞容 律師者 名眞表 碧骨郡大井村人也 年十二 來棲賢戒山不思議巖 賢戒山者 卽此山是已 眞心宴坐 欲見慈氏地藏 踰日不見 乃投身絕壑 有二青衣童子以手奉之曰 師法力微小故二聖不見也 於是努力益勤 至三七日 巖前樹上 有慈氏地藏現身授戒 慈氏親授占察經二卷 并與一百九十九粒 以爲導往之具”

19) 『河陰先生文集』卷之七, 關東錄 下.

“新羅法興王時 有眞表律師者入邊山 寓不思議庵 奉眞性簡子 入此山到鉢淵 龍王獻可居之地 於是創鉢淵庵 又創不思議上中下三庵 復以其簡子 又創此寺”

20) 『魯西先生遺稿續』卷之三, 雜著 巴東紀行 甲辰.

“盤石平鋪 狀如鉢淵 故馳瀑之戲 僧徒效嚙 玉明老師言鉢淵昔有名僧眞表者 爲定心工夫 加跌坐馳于瀑布 終日不輟 若數珠面壁之意 秖今馳瀑 傲而爲之云 師言有徵矣”

21) 『弘道先生遺稿』卷之五, 東遊錄.

적에 진표를 결부시켰으며 불승들은 물론 속인들까지도 진표를 효친의 표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효행중심으로 진표전승이 강한 전승력을 유지한데 대해서는 李滌의 진단이 주목된다. 대체로 승려라면 倫紀를 거역하기 일쑤인데 진표만은 그 덕행 가운데서도 효행을 지키며 친성을 지켜냈다는 점을 그는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sup>22)</sup>

유자들은 수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승들에게 유희적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준 인물이 진표라는 사실도 잊지 않았다. 馳瀑은 원만한 거석이 포개진 자리에 폭포가 형성된 탓에 승들의 유희처로 이목을 끌었으며 유람객들의 놀이터로 변한 곳이다. 유자들은 한결같이 치폭이란 명칭이 진표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진표의 수행과 연관시키느냐 효행과 연관시키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다. 전자를 증언해주는 이는 尹宣舉, 李裕元이며 후자를 증언해주는 이는 魚有鳳, 宋煥箕이다.

宋煥箕의 채록에 따르면 진표는 어머니에게 드릴 국그릇을 든 채 바위 위를 무사히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으로 효성을 가름해보았는데 국그릇을 든 채 쏠살같이 활강하면서도 국을 엎지르지 않았다고 한다.<sup>23)</sup> 이는 진표가 더없는 효자라는 초기 전승이 확장된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전승이 자리 잡고부터 사람들은 진표의 효양을 더욱 기리는 것은 물론 치폭은 승들이 긴장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맛보며 나체로 장난치는 장소로, 나아가 속인은 물론 유자들도 끼어들어 그들과 더불어 즐기는 장소로 변했던 것이다.<sup>24)</sup>

---

“午飯訖 乃發向鉢淵寺 歷登萬象臺 臺之一名億景臺 一名孝養臺 一名孝養高峙 所謂孝養爲名者 昔有高僧眞表栗 師者 置其母於安心地 日日越此時孝養 故峙因以名云”

22) 『弘道先生遺稿』卷之五, 東遊錄.

“蓋僧道以絕倫紀爲能事 今此僧不棄倫紀而孝養 秉彝之性 不泯而存 於此亦可見矣 沉吟良久”

23) 『性潭先生集』卷之十二, 雜著 東遊日記.

“以爲昔律師踰嶺往徠 供養其親 欲自驗其誠孝淺深 持羹盂走石上 羹不覆 後人慕效之 遂成此戲云”

24) 『秋江集』第5卷, 遊金剛山記.

“庵上少許 有瀑布橫垂數十丈 左石皆白石 滑如磨玉 可坐可臥 余解裝掬水漱口 飲

초기 전승에서부터 진표는 부친을 극진히 섬긴 효자로 등장한다. 이는 고려 조선시기에 이르러도 변하지 않는 사실로 남았으며 특히 유자들이 진표전승을 입에 올리게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조선시기의 유자들이 진표를 신라의 승려로 보고 부친이 아닌 모친을 봉양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는 했으나<sup>25)</sup> 그를 효행승으로 보고자 하는 태도는 후대로 갈수록 한층 강조된 것으로 나타난다.

유자들이 전하는 진표 전승은 단편적 일화가 대부분이다. 그것도 효행담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유자들이 진표의 일대기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그들이 접한 전승중 유가적 사고나 가치에 부합되는 덕목만을 기억에 담아두려 했음을 보여준다. 수행력과 효행이란 덕성만을 응시하는 유자들의 시각은 진표에게 각자, 구원자로서의 상을 끊임없이 부여하려는 불가의 시각과 자연히 괴리감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유자들이 전하는 진표전승은 불승으로서의 면모를 되새기거나 부처의 가르침을 교시하는 식의 전승단위를 오히려 외면했다고 할 수 있다. 유가에서는 불승인 진표에게서 유가적 지향성과 덕성을 찾아내는데 골몰한 것으로 나타난다.

## 5. 俗家, 민중 꿈의 실현과 좌절

진표를 전승적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또 다른 집단으로 우리는 속가의 민중들을 외면할 수 없다. 민중들은 삼국이래 최근까지 진표전승에서 가장 핵심적인 담당층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이야

---

蜜水 鉢淵故事 釋子遊戲者乃於瀑布上 折薪而坐其上 放於水上 順流而下 巧者順下 拙者倒下 倒下則頭目沒水 久乃還出 傍人莫不酸笑 然其石滑澤 雖倒 下體不損傷 故人不厭爲戲 余令雲山先試之 繼而從之 雲山八發而八中 余八發而六中 及出巖上 拍手大笑”

25) 진표의 초기전승을 담고 있는 불가의 문헌자료들은 진표가 홀로 계신 아버지를 대동하면서 수행생활을 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조선이후 전승에 오면 어머니를 봉양한 것으로 내용이 바뀐다.

기는 있는 그대로 문헌에 오르지 못한 채 대부분 사라져버림으로써 그들의 진표전승이 갖는 고유성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나마 최근 채록된 2종의 용자칠총 이야기가 있어 俗家 내 진표전승의 특성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 하겠다.

민중들은 출가이후 고승으로서의 자취는 외면한 채 출가하기 전 俗人으로서의 진표에만 관심을 두었다. 민중들은 진표의 聖跡을 채집하고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상관없이 없을뿐더러 역사에 대한 강박감에서 자유스럽다. 아무리 중요한 인물, 사건일지라도 민중의 기억 속에서는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말<sup>26)</sup>이 있듯이 민중들은 진표의 史實을 재구하거나 불교적 전형으로 그를 미화하려 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들은 진표를 고승이나 역사인물로 기억하기보다 그를 통해 자신들의 사고와 처지를 투영하는 공감적 투사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한층 농후했던 것으로 보인다.

속가에서 번진 진표전승을 증거해주는 자료로는 앞서 살핀 바 있는 夢行錄의 자라각시와 김제지역의 龍子七塚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전자는 불가의 전승 논의에서 다른 터이니 이제 김제지역에서 채록된 2종의 龍子七塚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도록 하겠다.

『金堤郡史』 소제 龍子七塚談을 보면 가난한 총각 진표가 자라에서 변신한 각시와 결혼하여 노모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 그러나 10달 동안 떨어져 지내자는 아내의 약속을 어기고 기한 전에 돌아와 아내와 용자가 노는 것을 지켜본 탓에 7용자는 죽고 아내는 사라진다. 이에 좌절한 진표가 봉래산에 들어가 수도 끝에 석불이 된다.<sup>27)</sup>

26) 미르치아 엘리아데 지음·심재중 옮김, 『영원회귀의 신화』, 이학사, 2009, 55면.

27) 김제군사편찬위원회, 『金堤郡史』, 1978, 865면.

“옛날에 진표라는 고승이 있었는데 어려서 편모를 모시고 살았다 한다. 그는 효성이 지극하여 매일 물고기를 낚아다가 모친의 찬을 해드렸는데 하루는 큰 자라를 한 마리 잡게 되었다. 진표는 기뻐서 이 자라를 집안에 있는 항아리에 넣어두고 다시 낚시를 하러 나갔다. 그 날 석양에 낚시질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즉 부엌에 난데없는 진수성찬 두 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었다.

괴이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날 저녁을 배불리 먹은 진표는 다음날도 낚시질을 나갔다. 그런데 그 날 저녁에 돌아와 봤더니 전날과 똑같이 상이 차

『金堤市史』 소재 용자칠총 이야기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병중의 홀어머니를 봉양하던 진표가 어머니를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자라를 잡아 부엌에 두었는데 이후로 늘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자라각시의 선행임을 알게 된 진표는 그녀를 아내로 맞아 행복하게 산다. 하지만 10달 동안 떨어져 있자는 아내의 말을 지키지 못하고 기한 직전에 돌아오는 바람에 용녀와 용자를 잃고 실의에 빠졌다가 월출암에 들어가 수도하며 평생을 보내게 된다.<sup>28)</sup>

두 자료는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만 전자와 달리 후자에서는 노모가 병중에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어 흥미롭다. 이는 진표의 효행을 헌충 각인 시키기 위한 복선적 의미를 갖는다. 고래 효행고사를 보면 병중의 부나 모를 공양하는 상투적 상황이 설정된다. 그와 같이 진표도 병석의 노모를 위해 한겨울에 물고기를 잡으러 강에 나갔다가 자라를 잡았다고 되어있다. 진표의 효심에 용녀가 감복하여 얼음을 깨고 나와 스스로 잡혀준 결과였다. 어쨌든 동일한 줄거리를 포함한 두 용자칠총 이야기는 19세기 채록된 자라각시 이야기를 그 원형으로 삼은 것이라 하겠다. 다만 속가에 퍼진 용자칠총 이야기로

---

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진표는 낚시질을 나가지 않고 하루종일 부엌을 엮고 있었다. 그랬더니 자라를 넣어둔 항아리에서 묘령의 처녀가 나오더니 부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었다. 진표는 재빨리 뛰어나가 처녀를 붙들고 사연을 물은 후 인연을 맺을 것을 간청하였다. 처녀가 이를 쾌히 승낙하므로 이날부터 부부의 연을 맺어 편모를 극진히 모시면서 단란하게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부인은 남편 진표에게 앞으로 열달 동안만 떨어져 살자고 하였다. 진표는 부인이 하자는 대로 그날부터 각지를 떠돌며 유랑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한달 남짓 지나자 아내가 그리워 참을 수가 없었다.

진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고 말았다. 그가 집안에 이르러 아내를 부르며 방안을 들여다 보자 방안에서는 한 마리 용이 일곱 마리의 새끼 용을 데리고 놀고 있었다. 진표는 너무도 놀라운 일을 보고는 감히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서 자기가 돌아왔음을 알렸다. 그러자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본시 용녀(龍女)로서 당신의 지극한 효성에 감복하여 부부의 인연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절연해야겠습니다。」 하더니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용녀가 사라져 버리는 바람에 어린 용자 일곱 명도 마저 잃게 된 진표는 그만 미쳐 버렸고 산천을 헤매고 다니던 끝에 봉래산 월출암(月出庵)에 들어가 수도하여 후에 석불로 환위했다고 한다.”

28) 김제시사편찬위원회, 『金堤市史』, 1995, 1598-1603면.

오면 가족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점을 비중있게 현시하는 방향으로 서사의 성격이 바뀌게 된다.

그렇다면 龍子七塚 이야기에서 자라각시의 남편을 眞表로 설정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진표가 세간을 벗어나 출세간에 든 고승이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상관없이 그에 따라 붙어다니던 효자로서의 명성을 유의한 데서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싶다. 역사적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적 실상과 판이한 기억위에서 전승이 재구축되는 일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 불가의 전승자인 鑿岈이나 一然이 외면해 버렸던 진표의 출가 전 이야기가 도리어 구비담당층의 관심을 끈 까닭은 진표가 처한 속가의 삶이 자신들의 처지와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진표는 용자칠총 이야기에서 민중의 꿈과 좌절 두 가지를 투사시켜 주는 인물이다. 이야기의 전반부는 속인의 소망이 실현되는 부분이라 하겠는데 효행의 덕으로 자라각시가 나타나 그가 바라던 모든 것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다. 재물이 넉넉하고 노모가 원기를 회복하고 부부에게 7 아들이나 태어났으니 진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된다. 세간을 벗어나려는 구도자나 백성을 제도하려는 통치자와 달리 진표의 視界는 가정에 머물러 있으며 그 안에서 충분히 자족감을 누리고 있음을 전반부는 잘 보여주고 있다.

용자칠총 전승의 후반부는 행복했던 진표의 가정이 붕괴되는 과정과 다를 바 없다. 진표가 바란대로 미녀와 결혼하고 영화를 누릴만한 단계에서 금기를 위반한 탓에 과거로 회귀하는 처지가 된다. 사실 아내가 그리워 기한을 못 채우고 돌아왔다는 것을 죄로 진표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수궁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삶이란 얼마든지 그렇게 작동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전개이기도 하다. 진표는 비로소 주어진 조건과 운명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조적으로 깨닫게 된다.

우렁각시에서 총각의 금기위반에 대해서는 도덕성에 대한 책무의 망기, 곧 아내의 말을 지키지 않아 불행을 자초했다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29)</sup> 그러나 용자칠총 이야기에서 잠깐의 행복을 맛보게 한 뒤 진표를 과

거로 복귀시켜 좌절감 속에 빠뜨리는 것은 주어진 조건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민중의 현실인식이 투사된 것이라고 보아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

용자칠총 전승이 칠용자의 묘에 대한 내력을 염두에 두고 출현된 것임을 환기한다면 우렁각시 이야기와 같이 민담의 영역에 넣기가 어색하다. 그것은 설명전설이라야 옳다. 기본적으로 이 전승은 신빙성을 제공하는 유적으로서 용자칠총이 존재하고 지역민들에게 성스런 장소로 관념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전승담의 말미에 한결같이 용자칠총의 구체적인 위치가 제시되는 것이나 화자들이 이야기를 전해주며 그것이 용자묘의 내력담임을 주지시키는 것<sup>30)</sup> 을 보면 전설의 성격에 한층 부합된다고 하겠다.

## 6. 맺는말

본고는 진표전승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전승자의 태도 및 관점이라는 입장에서 佛家, 儒家, 俗家로 전승자 집단을 대별하고 각 집단에서 발생, 유통된 전승담의 변별성에 주목하였다. 불가는 진표를 불교적 인간의 전형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당연히 일생단위 중에서도 불교적 덕성에 부합되는 서사부위만을 선별하여 생을 구성한다. 추종해야 할 상을 전제로 한 이야기이다 보니 진표는 자연히 聖顯의 주체로서 부각되기에 이른다. 유가는 기본적으로 반불적 성향을 견지하는 집단이지만 진표에게는 상당히 호의적 시선을 보낸다. 이는 진표가 효행의 본보기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외 진표의 수행력을 높이 평했는데 그들이 기억하고 전하는 진표의 이야기는 이 두 권장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고승인

29) 주재우, 「조선족 우렁각시 설화의 변이양상과 의미」, 『어문논집』 50집, 2012, 321면.

30) 김제군사편찬위원회, 상계서, 865면. “...전설이 있으며 아울러 前記 七龍子를 당시에 매장한 곳이었다고 하는 地帶는 現 龍池面 孝亭里 金堤 全州 伊西線 도로 변 仙人洞 후에 지금도 큰 塚墓가 뚜렷이 있는데 이는 세칭 龍子七塚이라 전해지고 있다.”

진표에게서 그들이 찾고자 했던 것은 군자의 상이었으며 그것만을 화제거리로 삼고자 했다. 속가에서 지어지고 퍼진 진표전승에는 역사적 인물인 진표가 아닌 상상, 환상을 통해 자의적으로 창조된 진표가 등장한다. 진표는 민중의 소망과 현실인식을 투영시키는 대리인이다. 속인으로서 그는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곧 주어진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기에 이른다. 속가 이야기에 등장하는 진표는 민중이 그려낸 그들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진표전승이 폭넓고 다채롭게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진표를 잊지 않는 다양한 신분, 계층, 욕망의 전승자들이 시대를 넘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진표의 역사를 재구하기보다는 그를 매개물로 삼아 자신들의 입장, 환경, 욕망 등을 표출하고 이를 기억의 대상으로 남기려 했다.

## ○ 참고문헌

- 『金堤郡史』.
- 『金堤市史』.
- 『杞園集』卷20, 再遊金剛內外山記.
- 『魯西先生遺稿續』卷3, 巴東紀行.
- 『東國李相國集』卷23, 南行月日記.
- 『三國遺事』, 楓嶽山鉢淵藪石記, 眞表傳簡.
- 『性潭先生集』卷12, 東遊日記.
- 『成齋集』, 金剛觀敍.
- 『宋高僧傳』, 眞表傳.
- 『月谷集』卷10, 遊楓嶽日記.
- 『林下筆記』卷37, 蓬萊秘書.
- 『秋江集』卷5, 遊金剛山記.
- 『河陰先生文集』卷7, 關東錄 下.

『韓國佛敎全書』卷9, 雪潭集.

『弘道先生遺稿』卷5, 東遊錄.

DM 라스무센 지음·장석만 옮김, 『상징과 해석』, 서광사, 1991, 32면.

고석훈, 『진표·진목문학의 특질과 전승양상』, 동국대 석사논문, 2001, 9-30면.

고익진, 『한국고대불교사상사』, 동국대출판부, 1989, 77면.

김남윤, 「진표의 전기 자료성격 검토」, 『국사관논총』 78, 국사편찬위원회, 1997.

김승호, 「불교적 영웅고」, 『한국문학연구』 12집, 1989, 329-354면.

김영태, 「점찰법회와 진표의 교법사상」, 『신라불교연구』, 민족문화사, 1990, 381-404면.

미르치아 엘리아데 지음·심재중 옮김, 『영원회귀의 신화』, 이학사, 2009, 55면.

박광연, 「진표의 점찰법회와 미륵신앙」, 『한국사상사학』 26, 2006, 1-32면.

배도식, 「우렁각시 설화의 구조와 의미」, 『동남어문논집』 23집, 2007, 40면.

서철원, 「진표 전기의 설화적 화소와 盛者의 형상」, 『시민인문학』 16호, 2009, 165-186면.

조인성, 「미륵신앙과 신라사회-진표의 미륵신앙과 신라말 농민봉기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82, 1996.

주네트의 지음·석경정의 옮김, 『현대서술이론의 흐름』, 솔, 1997, 124면.

주재우, 「조선족 우렁각시 설화의 변이양상과 의미」, 『어문논집』 50집, 2012, 321면.

카트린뢰게 알더 지음·이문기 옮김, 『민담, 그 이론과 해석』, 유로, 66면.

이 논문은 2013년 8월 1일 접수되고

2013년 9월 13일 심사완료되어

2013년 9월 13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The Aspect of Projection in Memory According to  
Group of Transmission

- Focusing on Transmission of Jinpyo(眞表) -

Kim, Seung-Ho

As a story of Jinpyo(眞表) is a rare case that has been maintained the transmission power until recently from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it is very suitable for the discussion subject of transmi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characteristics that are shown in contents, form, and theme in each of transmission remarks by dividing the transmission class of Jinpyo story into Buddhist(佛家), Confucian(儒家), general public(俗家) focusing on transmitters among elements of transmission.

The transmissions, which were recorded with being remembered in Buddhist, show tendency of consistently accepting the whole life of Jinpyo with the narrative time. What proceeds with compiling a life story by excluding what is strong in secular element and sorting it out with unit of holy contents with positively accepting the transmission of Jinpyo in the private can be said just to be characteristic of being shown in these transmissions. Jinpyo, which was projected in Songgoseungjeon(宋高僧傳), Balyeonsuseokgi(鉢淵斂石記), Samgukyusa(三國遺事), is highlighted as the transcendental existence of guiding even microscopic organisms to the world of Buddhism as well as saving and civilizing human beings.

Contrary to this, Confucian has an open hand in prescribing Jinpyo as a doer of filial piety, which is prioritized as the unspiritual moral sense. Especially, confucian intellectuals in Joseon period are emphasizing virtuous conduct, above all, as a dutiful son of concentrating own energies on parents even with taking ascetic exercises of not disliking death through transmitting Jinpyo and with being bound to temple. Jinpyo, which was shown in the transmission of general public, is prescribed as an owner of destiny that cannot help accepting the given life without a murmur, not a high priest or a historical great man. He achieves a dream once, but comes to inevitably suffer frustration by being confined in fence once again. The transmission of Jinpyo(眞表) in general public is not what implies Jinpyo as a historical figure, but needs to be regarded as what indicates people themselves.

Through transmitting Jinpyo, we come to definitely confirm that transmitter is existence of changing a story and further curving a story focusing on self, not passive existence of delivering with listening to a story.

Key Words: Transmission of Jinpyo, Group of transmission, Confucian.  
Buddhist, general public, filial duty